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839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2200-500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6월 15일 (음력 5월 23일) 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저수율 주암호 15%·동복호 13%

광주 마실 물이 바닥났다

市, 17년만에 제한급수 검토

최악의 장기 가뭄으로 광주시가 지난 1992년 이래 17년 만에 제한급수를 검토하는 등 식수원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14일 현재 광역상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이 1988년 준공 이후 최저인 15.7%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동복호는 13.4%를 기록, 최악의 물부족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동복호 저수율은 13.4%(저수량 1천289여만t)로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저수율 56%(저수량 5천160만t)와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저수량으로는 72일 밖에 공급할 수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주암호 저수율은 15.7%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6%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주암호는 총 저수량 4억5천700만t중 7천356만t만 채워져 있어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90여일밖에 버틸 수 없다. 주암호의 역대 최저 저수율은 지난 2002년 20%대였다.

이에 따라 시는 평상시 1일 공급량 48t 가운데 동복호에서 28만t, 주암호에서 20만t을 끌어다 썼으나, 동복호가 말라감에 따라 취수량을 18만t으로 줄이고 주암호 취수량을 30만t으로 늘렸다.

그러나 시는 7월 중순까지 100㎜ 이상 집중호우가 없을 경우 지난 1992년 10월께 부터 이듬해 3월까지 156일 간 제한급수를 실시한 이래 17년 만에 제한급수 조치를 단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동복호의 저수율은 4%대였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12일 발표한 1개월 예보에서 "다음달 초순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우량이 평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관계자는 "이번 주말인 20일 한차례 전망되고 있지만, 당분간 가뭄을 일시에 해소할 만한 많은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광주 시민들의 물 사용량은 줄지 않고 있어 조기 제한급수 조치도 우려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비상급수대책을 추진하면서 목욕탕 등 대량 물 소비 업소를 대상으로 관정 등을 사용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물 사용량은 제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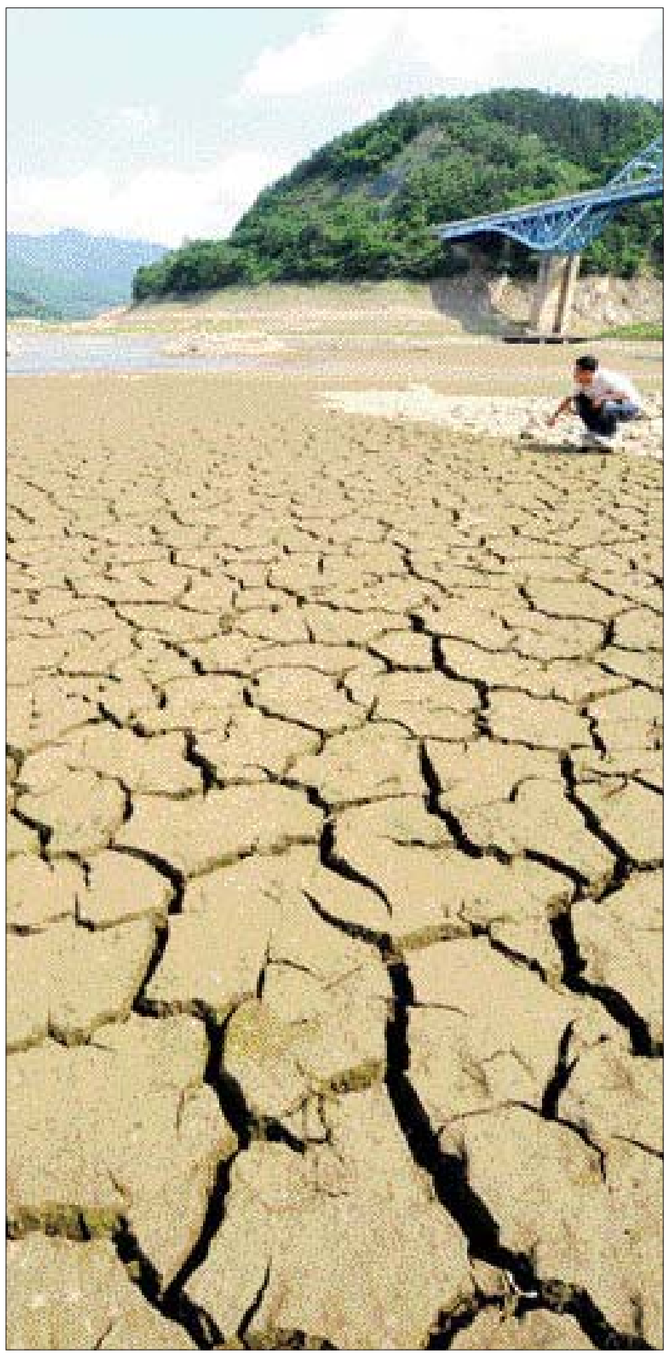
현재 광주 시민들의 1일 수돗물 사용량은 36만9천800t, 1인당 1일 사용량은 264ℓ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물 소비추세가 유지되고, 비가 오지 않을 경우 3일제 제한급수라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광주시 상수원인 동복호가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수질까지 악화돼 수돗물 정수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예년에 1일 20만t의 물을 광역상수원인 주암호에서 끌어오는 비용으로 연간 140억원을 지불해 왔으나, 이번에 10만 톤으로 늘림에 따라 상수원 확보 추가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제한 급수라는 심각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물 사용량은 줄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물 절약운동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김형호기자 penfoot@



거북등 주암호 지난해 가을부터 지속된 최악의 가뭄으로 광주시 상수원인 주암호의 저수율이 14일 현재 15.7%로 떨어져 호수 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름 웨딩 패키지
뷔페/양식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062-228-4711~2
대표전화 062-228-8000

'별관 해법' 27일까지 안나오면

시민여론조사 실시키로

10인 대책위 결정…추진단·5월단체 18일 토론회

박광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10인 대책위원회'가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를 매듭짓는 해법 마련을 위해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0인 대책위원회'의 간사위원인 박광태 광주시장, 조영택 국회의원, 강박원 시의회의장은 지난 12일 밤 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인 대책위 일정표'를 공개했다.

대책위 자체 일정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5월 단체들과의 조정기간을 갖되, 해법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여론 수렴을 위해 오는 29일 TV방송사가 주관하는 1차 토론회, 7월3일 2차, 6일 3차 토론회를 거치는 일정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도 해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8일~10일까지 3일 동안 방송 3사 주관으로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민 여론조사에는 그동안 제시됐던 별관 완전철거 상징물 건립, 부분 존치 등 다양한 방안이 설문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인 대책위 활동마감 시간을 하루 앞둔 7월14일에는 5월 단체와 대책위간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최종 합의를 거쳐 15일에는 대책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별관 철거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시민여론조사에 회의적이어서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10인 대책위'와 광주지역 진보 및 보수·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1일 밤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과 관련, 철거와 보존에 따른 이분법적 입장에서 벗어나 절충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예총, 광주민예총, 시민단체협의회, 시민단체총연합, 문화연대, 문화유산연대, 진보연대, 동구주민대책위,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등 12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날 10인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마지막 결정을 위해 고려됐던 시민 여론조사에 앞서 단일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위원장 양혜령·동구1)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과 이영진 전 단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신경진 5·18부상자회장, 강구영 5·18부상자회 정책실장, 허연식 5·18유공자유족회 전문위원, 정춘식 5·18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정용식 시민모임 실무위원 등이 배석, 토론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입장표명도 할 예정이다.

/윤영기·박정욱기자 penfoot@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오늘 개막 ▶관련기사 18면

한국인 여교사 예멘서 피랍

국제의료봉사단체 9명, 시아파 반군에

예멘에서 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한 국제의료자원봉사단체 '월드와이드 서비스' 단원 9명이 실종됐다고 외교통상부가 14일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시간 12일 오후 4시께 예멘 수도 사나에서 북쪽으로 200km 지점에 위치한 사다에서 한국인 한사람이 포함된 국제의료자원봉사단체 월드와이드 서비스 단원 9명이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아직까지 연락이 두절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제반 정황을 비춰볼 때 납치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종자 중 한국인은 34세의 엄 모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FP 통신은 앞서 현지 지역 관리를 인용, 한국인 여교사 1명과 독일인 7명, 영국인 기술자 1명 등 9명의 외국인이 예멘 북서부 지역에서 시아파 반군에 납치됐으며 납치된 이들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보도했다.

월드와이드 서비스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 봉사단체로 의료관계와 가정교사 등으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